



농업인 경제심리지수 개발 및 시범조사 결과

김상효·이소영·이기현·지정훈·임준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이순미 부연구위원 061-820-2386 wnong@krei.re.kr
내 용 문 의 김상효 연구위원 061-820-2218 skim@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234호

농업인 경제심리지수 개발 및 시범조사 결과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6. 2.

발 행 인 한두봉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234호(2026. 2. 11.)

농업인 경제심리지수 개발 및 시범조사 결과

김상효·이소영·이기현·지정훈·임준혁

요 약

농업인의 현재 여건 판단과 향후 12개월 전망을 분리해 측정한 경제심리지수 조사 실시

- 농업 전반적인 업황 관련 농업인의 체감 및 전망을 적시에 파악할 정책적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분기별 또는 월별 조사 및 발표를 목표로 ‘농업인 경제심리지수’를 설계하고 시범조사를 실시함.
- 농업인 경제심리지수는 농업경영·생활·활력·기후·환경·농정·정책 영역 문항을 전년 대비 변화 기준으로 점수화한 지표로, 기준점 100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 100 초과는 ‘전년 대비 긍정 판단’, 100 미만은 ‘부정 판단’을 의미함.
- 동일한 조사 문항과 지수 산출 체계를 적용해 2025년 3분기(7~9월, n=863)와 4분기(10~12월, n=788)에 조사를 실시함.

농업인 경제심리지수(종합 지표)는 3분기 89.12에서 4분기 90.45로 소폭 상승했으나, 기준점(100) 대비 10p 정도 낮은 수준임. 현재 농업 여건 판단 지수는 3분기 73.98에서 4분기 83.33으로 상승했으나, 전년 수준 대비 16.67p 낮은 상태

- 전년 대비 현재 농업 여건 판단 지수는 3분기 73.98에서 4분기 83.33으로 9.35p 상승함. 다만 4분기 지수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100보다 16.67p 낮아, 농업 여건이 전년보다 나아졌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 가격·온라인 유통 관련 문항은 4분기에 100을 상회했으나, 생산비·생산단가·생활비 부담·기후·생산 안정 관련 문항은 3·4분기 모두 100 미만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여건 판단을 제약함.

향후 12개월 농업 여건 전망 지수는 3분기 71.75에서 4분기 79.84로 상승했으나, 현재 여건 판단보다 더 보수적

- 향후 12개월 농업 여건 전망 지수는 3분기 71.75에서 4분기 79.84로 8.09p 상승함. 그러나 4분기 전망 지수는 100 대비 20.16p 낮아, 현재 여건 판단 지수(-16.67p)보다도 더 낮은 수준임.
- 향후 12개월 전망에서 ‘매우 좋아짐’ 응답 비중은 4분기에도 1.25%에 그쳐(3분기 0.49%), 향후 여건에 대해 전년 대비 개선을 예상한 농업인은 거의 확인되지 않음.

본 시범조사는 농업인이 업황에 대해 어떻게 체감하는지 큰 시차 차이 없이 적시에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농업인의 체감과 전망을 분리해 정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향후 조사 문항 및 체계 보완, 표본 설계 및 기중치 산정의 정교화, 대표지수 산출 방식 검토 등을 통해 농업 여건에 대한 체감 및 전망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01



농업인 경제심리지수 조사 필요성 및 개요

1.1. 조사 추진 배경과 필요성

농업경영 환경변화 속에서 농업인의 체감 여건과 전망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필요성 증대

- 최근 농업경영 환경은 기후변화, 생산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주요 작물의 주산지가 변화하고,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변동 폭이 커지면서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재배면적 감소, 병해충·재해 발생 위험 증가가 함께 나타나며, 농가의 경영 예측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음.¹⁾

농업인의 기대·전망 변화는 농업 생산·투자·경영 지속 판단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

- 농업인의 심리적 인식은 생산 조정, 경영 지속 여부 등 실제 경영 의사결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임.²⁾
 - 이를 지속적으로 관측할 경우, 경영 부담 확대나 생산 조정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정책 대응을 준비하는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인식 변화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의 인식 흐름이 정책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타 산업 부문과 달리 농업 부문 경기·전망 중심의 심리지표가 미비

- 농업 부문은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농업총조사, 행정자료 등 연 1회 또는 비정기적으로 생산되는 통계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가격·수급 변동이 잦은 상황에서 농업인의 체감 경기와 전망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함.
 - 제조업·서비스업은 BSI 같은 월간 심리지표를 통해 산업의 체감 변화를 비교적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으나, 농업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표는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관계부처합동, 2025).
 - 이에 따라 농업인의 체감 경기와 전망 변화를 정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조사 체계가 필요하며, 본 조사는 이러한 자료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시범조사로 추진됨.

1)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2024)은 기후변화로 주요 작물의 재배지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음을 제시함. 또한 이상기상 증가와 함께 배추·과수류를 중심으로 가격 급등락 사례가 늘어나, 생산 불안정성이 가격 변동성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확인함.

2) 권성훈 외(2018)는 경제심리지수가 기대·전망 변화를 포착하는 유용한 보조지표임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는 농업 부문과 같이 경기·전망 지표가 미비한 분야에도 시사점을 제공함.

1.2. 주요 영역별 조사 항목

농업인의 체감 여건과 향후 전망을 분기별로 조사

- 본 조사는 2025년 3분기와 4분기에 설문조사를 통해 농업인의 현재 여건과 향후 전망을 분기 간격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함. 조사 내용은 농업경영, 생활·활력, 기후·환경, 농정, 조사 기초 정보로 구성됨.
- 농업경영과 생활·활력 관련 문항을 통해 생산·소득·투자 등 경영 여건과 농촌생활 여건 전반에 대한 체감과 전망을 함께 파악함. 또한, 기후·환경, 농정 관련 문항으로 기후영향 인식과 농정 여건 체감을 파악함.

표 1 2025년 농업인 경제심리지수 조사 항목

구분	조사 항목	조사 내용
총괄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 농업 상황 농촌생활 여건 	<p>전년 동기 대비 현재 상황 및 향후 12개월 상황 전망(①매우 나쁨~⑤매우 좋음)</p> <p>전년 동기 대비 현재 생활 및 향후 12개월 생활 전망(①매우 어려움~⑤매우 좋음)</p>
농업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직황 농축산물 소비 농축산물 판매가격 농축산물 생산비 농축산물 생산단가 농가소득 투자 	전년 동기 대비 현재 농업 여건 및 향후 12개월에 농업 여건에 대한 전망 (①매우 부진/감소/하락/줄임~⑤매우 양호/증가/상승/늘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축산업 발전 온라인 농축산물 유통 농축산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현재 농업 여건 세부 사항 및 향후 12개월 농업 여건 세부 사항 전망 (①매우 부진/감소~⑤매우 양호/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 어려움 전망 	향후 12개월 동안 농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낮은 판매가격, 높은 투입비용, 내수부진, 환경규제, 이자율 상승, 기타 중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 지속 의향(4분기 신설) 후계자 여부(4분기 신설) 	<p>농업경영을 계속할 의향(①가능한 빨리 그만두고 싶음~⑤가능한 오래하고 싶음)</p> <p>농업경영 후계자 존재 여부(①현재도 없고 육성계획도 없음~⑤확실히 있음)</p>
생활·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 활동 시간 영농 외 활동 임금 수준 가계소비지출 농촌 보건의료 여건 농촌 관광객 수 청년 농업인 수 귀농/귀촌 인구 농촌 소멸위기 	전년 동기 대비 현재 농촌생활 여건 및 향후 12개월에 농촌생활 여건에 대한 전망 (①매우 감소/하락/악화~⑤매우 증가/상승/호전)
기후·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해충 및 가축전염병 기후변화의 영향 	전년 동기 대비 현재 기후 환경 여건 및 향후 12개월 기후 환경 여건 전망 (①매우 증가~⑤매우 감소)
	자연재해 피해 경험	지난 12개월 동안 폭염, 한파, 흉수, 가뭄, 대설, 태풍, 황사 등 기후 관련 자연재해로 인해 농산물이나 축산물 생산활동의 피해 경험(예, 아니오, 잘 모르겠음 중 택1)
농정·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정책의 효과 전망 농업/농촌 정책 방향 한미 관세 협상 	<p>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제·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개선 효과 인식 (①매우 부정적~⑤매우 긍정적)</p> <p>우리나라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성 평가(①매우 부정적~⑤매우 긍정적)</p> <p>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우려(①매우 우려됨~⑤전혀 우려되지 않음)</p>
조사 기초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지역형태·연령·학력 영농경력·주작목·규모 소득·생활비·가족 구성원 	표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정보수집

자료: 저자 작성.

1.3. 조사 방법 및 표본 구성

KREI 현지 통신원 대상으로 온라인 시범조사 실시

- 본 조사는 2025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1회씩, 총 2회 실시되었으며, 온라인 조사로 진행함.
 - 목표 모집단은 곡물(논벼·식량작물), 채소·과일, 축산 부문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하며, 전국 단위를 대상으로 조사함.
 - 3분기 조사는 2025년 9월, 4분기 조사는 2025년 11월에 실시됨.
 - 조사는 전문 조사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행되었으며, 표본은 KREI 현지 통신원을 대상으로 추출함.
 - 수집된 자료는 출생연도, 영농경력, 농업경영 관여 정도, 응답 성실도를 기준으로 정제 과정을 거쳤음. 이 과정에서 주작목이 '기타'로 분류된 응답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그 결과, 3분기 원자료 1,075명 중 863명, 4분기 원자료 1,000명 중 788명의 응답이 최종 분석에 활용됨.
- 한편, 표본 구성에 따른 구조적 편의를 완화하고 지수 산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농형태(곡물, 과일·채소, 축산)와 영농규모(대·중·소)를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함.
 - 영농규모(대·중·소)는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3ha 이상을 '대', 1ha 이상 3ha 미만을 '중', 1ha 미만을 '소'로 설정함.
 - 축산 농가의 경우에도 동일한 경지면적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경지 없는 축산 농가는 소규모 농가로 간주하여 '소' 규모에 포함함.
 - 본 조사는 영농형태와 영농규모별 모집단 분포와 변동계수(CV)를 함께 고려하여 층화 제곱근비례 방식으로 표본을 설계·추출하였으며, 표본층별 가중치를 사후 산정·적용하여 표본 분포의 불균형을 보정하고 지수 산출의 안정성을 높임.

표 2 영농형태×영농규모별 표본 구성

3분기		영농규모				4분기		영농규모			
		대농	중농	소농	합계			대농	중농	소농	합계
영농 형태	곡물	180	96	79	355	영농 형태	곡물	169	67	78	314
	과일·채소	79	144	181	404		과일·채소	82	167	141	390
	축산	33	27	44	104		축산	25	33	26	84
	합계	292	267	304	863		합계	276	267	245	788

자료: 저자 작성.

- 조사 대상자의 지역 분포는 3·4분기 모두 영남권 비중이 가장 높았고, 호남권과 충청권이 그다음으로 나타났음. 연령은 60대 이상이 약 73~74%로 두 분기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학력은 대졸 이상이 약 절반 수준이었음. 전체 농가소득은 3천만 원 미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영농규모는 소·중·대농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함. 주 소득 작목은 과일과 논벼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표 3 조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특성	3분기		4분기		
		표본 수(명)	비중(%)	표본 수(명)	비중(%)	
지역	수도권	91	10.5	82	10.4	
	강원권	77	8.9	82	10.4	
	충청권	200	23.2	173	22.0	
	호남권	225	26.1	184	23.4	
	영남권	261	30.2	256	32.5	
	제주권	9	1.0	11	1.4	
연령	70세 이상	247	28.6	220	27.9	
	60~69세	392	45.4	355	45.1	
	50~59세	155	18.0	150	19.0	
	40~49세	51	5.9	44	5.6	
	30~39세	15	1.7	17	2.2	
	20~29세	3	0.3	2	0.3	
전체 농가소득	3천만 원 미만	458	53.1	430	54.6	
	5천만 원 미만	207	24.0	178	22.6	
	7천만 원 미만	82	9.5	79	10.0	
	1억 원 미만	69	8.0	58	7.3	
	1억 원 이상	47	5.4	43	5.5	
영농규모	소농	304	35.2	267	33.9	
	중농	267	30.9	245	31.1	
	대농	292	33.8	276	35.0	
주 소득 작목	곡물	논벼	273	31.6	240	30.5
		식량작물	82	9.5	74	9.4
	과일		282	32.7	268	34.0
	채소		122	14.1	122	15.5
	축산		104	12.1	84	10.7
최종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4	1.6	15	1.9	
	중학교 졸업	95	11.0	85	10.8	
	고등학교 졸업	303	35.1	283	35.9	
	대학 재학 또는 졸업	383	44.4	329	41.8	
	대학원 재학 이상	68	7.9	76	9.6	

자료: 저자 작성.

1.4. 지수 유형 및 산출

종합 농업인 경제심리지수 및 영역별 지수 산출

- 농업인 경제심리지수는 개별 문항에서 출발해 영역 단위와 종합 단위로 확장되는 방식으로 산출함.
 - 개별 문항 지수는 5점 척도 응답(①~⑤)을 50~150 범위(25점 간격)로 선형 치환한 뒤, 표본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함.
 - 동일 영역에 포함된 모든 개별 문항 지수를 단순 평균하여 영역별 지수를 도출함.
 - 종합 수준에서는 모든 영역의 영역별 지수를 단순 평균하여 농업인 경제심리지수(종합지수)를 산출함.

농업인 경제심리지수는 절대적 수준보다는 분기 간 변화 방향과 흐름을 중심으로 해석하도록 설계³⁾⁴⁾

- 본 조사는 KREI 현지 통신원을 표본으로 활용하고 있어, 일반 농가보다 정책 이해도와 정보 접근성이 높은 농업인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될 수 있음.
 - 각 지수는 전년 대비 변화에 대한 농업인의 체감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지수값이 낮을수록 해당 항목의 부담이 완화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의미함.
 - 이에 따라 본 지수는 농업인 전체의 평균적 인식을 나타내기보다는, 정책 변화에 민감한 집단의 체감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분기 간 지수 변화에는 시기에 따른 일시적 소득 유입 등 계절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정 분기 결과를 단독으로 해석하기보다 다른 분기 결과와 함께 비교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Purdue University-CME Group Ag Economy Barometer는 농업인 심리지수를 절대 수준보다 단기 변동과 기대 변화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음(Mintert & Langemeier, 2024a, 2024b).

4) 단일 종합지수 또는 보조지표 활용 가능성은 인식 변화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세부 인식의 이질성이나 잠재적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최근에는 기존 심리지표를 보완하기 위한 보조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음(정건영 외, 2024).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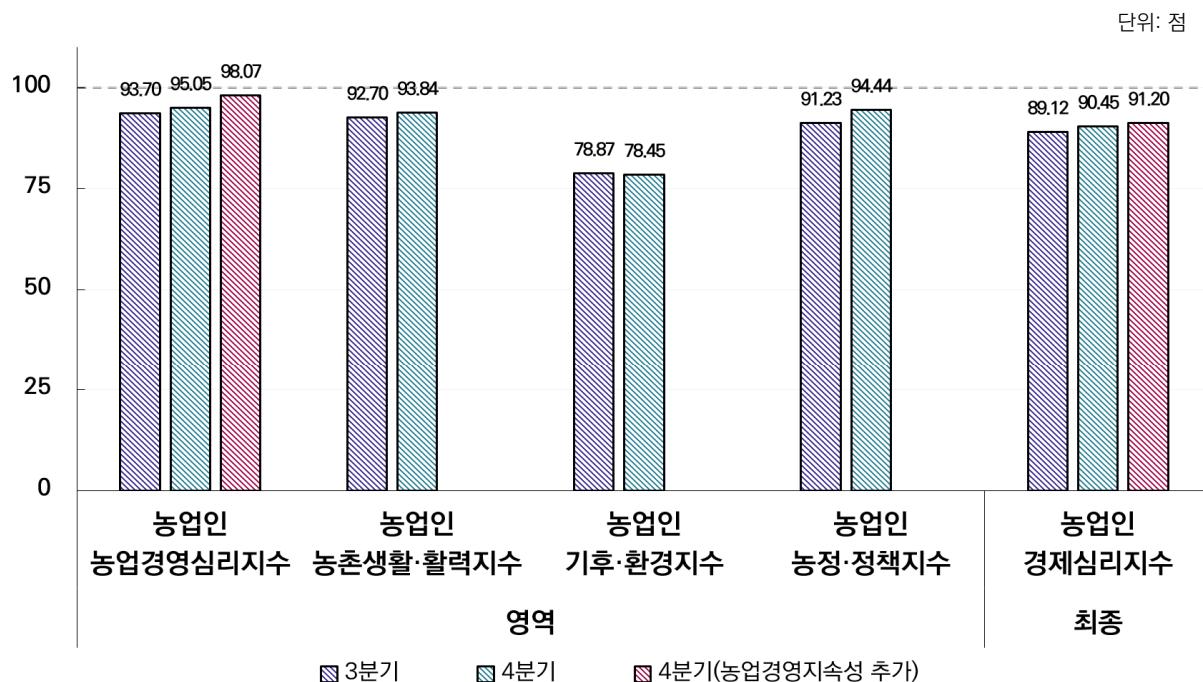


농업인 경제심리지수(종합)

농업인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부정적

- 2025년 4분기 농업인 경제심리지수 3분기 대비 1.33p 상승
 - 다만 여전히 지수가 100 이하⁵⁾로 나타나 농업인들은 경제 상황에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경영지속성 항목을 추가한 지수는 91.2로 이전보다 상승했으나 여전히 부정적 시각을 보임.

그림 1 농업인 경제 심리 영역별 지수 및 종합지수 비교



주: 본 점수는 5점 척도 응답(①~⑤)을 동일 간격(25점)으로 50~150 범위로 선형 치환한 뒤, 문항별로 표본기중치를 적용해 가중 평균한 값임. 영역별 지수는 동일 영역에 포함된 문항들의 가중 평균 값을 단순 평균하여 산출하였으며, 종합지수는 각 영역별 지수를 다시 단순 평균한 값임. 이는 응답 단계 간 차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반영하고, 영역 간 수준 비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처리임.

자료: 저자 작성.

5) 농업인 경제심리지수는 100을 '보통(중립)' 수준으로 설정한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상·하향 편차를 통해 농업인의 체감 경기를 해석함. 일반적으로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향후 경제 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우세함을, 100 미만이면 부정적 인식이 우세함을 의미함. 즉, 지수가 100에서 멀어질수록(상승 또는 하락) 농업인의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 또는 비관의 정도가 강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음.

농업경영지속성 반영으로 농업경영 지수는 상승했으나, 여전 개선 인식으로 보기는 제한적

- 4분기 농업경영지수는 전 분기보다 상승했으며, 농업경영 지속성 항목을 포함할 경우 98.07까지 높아짐.
 - 다만 생산비·생산단가 등 핵심 부담 요인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이 이어진 반면, 가격과 온라인 유통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며 지수 상승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됨.

농촌생활·활력 지수 상승은 전반적 개선이 아닌 일부 항목 변화의 영향

- 농촌생활·활력 지수는 소폭 상승했으나, 변화는 영농 외 임금과 관광객 등 일부 항목에 한정됨.
 - 가계소비지출, 청년농, 귀농·귀촌에 대한 평가는 두 분기 모두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고, 농촌 소멸 위험에 대한 우려도 지속됨.
 - 이에 따라 농촌생활 여건 전반의 개선보다는 농업 외 소득과 외부 유입에 대한 제한적 기대가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기후·환경 인식은 개선이나 악화 없이 현 수준이 지속되는 양상

- 기후·환경 지수는 3·4분기 모두 78 수준으로 나타나, 분기 이동에 따른 변화가 거의 확인되지 않음.
 - 이는 기후·환경 여건을 단기간에 조정 가능한 영역으로 보기보다, 지속적으로 감내해야 할 외부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부정 인식이 확대되었다기보다는 기존 판단이 유지되는 흐름에 가까움.

농정·정책 인식은 기대 확대보다는 불확실성 인식 완화 중심

- 농정·정책 지수는 4분기에 상승했으나,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게 확대되었다기보다는 정책 환경에 대한 불안 인식이 다소 완화된 결과로 해석됨.
 - 신규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두 분기 모두 긍정적 인식이 유지되어, 정책에 대한 기본적 기대는 이어짐.
 -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인식은 4분기에 점수가 오르며 통상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모습이 나타남.
 - 반면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는 기준선 수준에 머물러, 정책 환경을 여건 개선 요인으로 적극 평가하기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03



농업인 경제심리 항목별 변화

3.1. 농업 상황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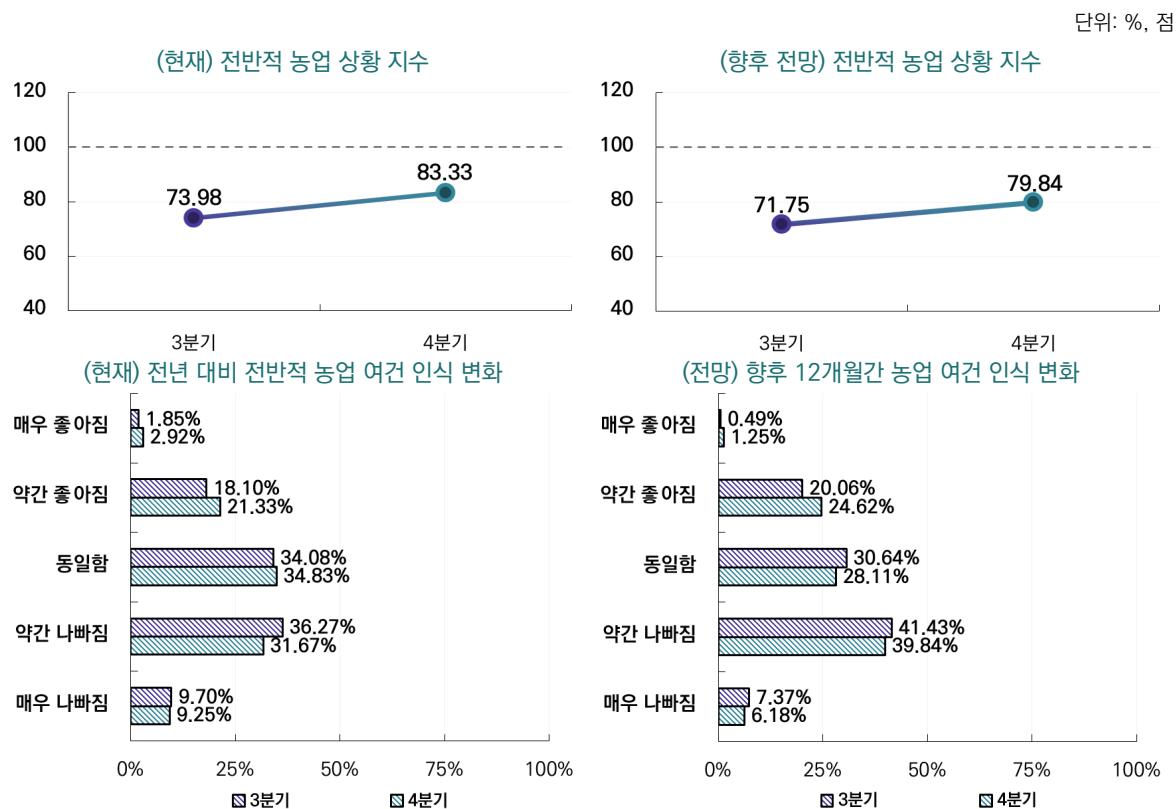
전년 대비 현재 농업 상황 인식은 '나빠졌다'라는 응답이 줄어들며 인식이 개선되는 흐름

- 전년 대비 현재 전반적인 농업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3분기 대비 4분기에는 '나빠짐(약간 나빠짐+매우 나빠짐)'의 응답 비중이 약 5%p 감소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농업인의 비중이 줄어듦.
- 반면 '좋아짐(약간 좋아짐+매우 좋아짐)'의 응답 비중은 약 4%p 증가해, 현재 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전보다 늘어남.
- 이러한 응답 분포 변화가 반영되며, 현재 농업 여건 판단 지수는 70대 후반(73.98)에서 80대 초반(83.33)으로 상승함. 다만, 지수가 100 이하라는 점에서 이는 '나쁘다'라고 인식하던 농업인의 체감 부담이 일부 완화된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따라서 “상황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힘들다고 느끼던 국면에서는 다소 벗어나고 있다”라는 인식 변화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향후 12개월 농업 상황 전망에서도 부정 응답 감소와 긍정 응답 확대가 동시에 확인

- 향후 12개월 농업 상황 전망에서도 현재 인식과 유사한 응답 변화가 나타남.
 - ‘나빠짐(약간 나빠짐+매우 나빠짐)’ 응답 비중은 모두 감소한 반면, ‘약간 좋아짐’ 응답 비중은 약 4.6%p 증가함.
 - 이에 향후 농업 상황 전망 지수 역시 70대 초반(71.75)에서 80대 근접한 수준(79.84)으로 상승함.

그림 2 농업인의 전반적 농업 상황 인식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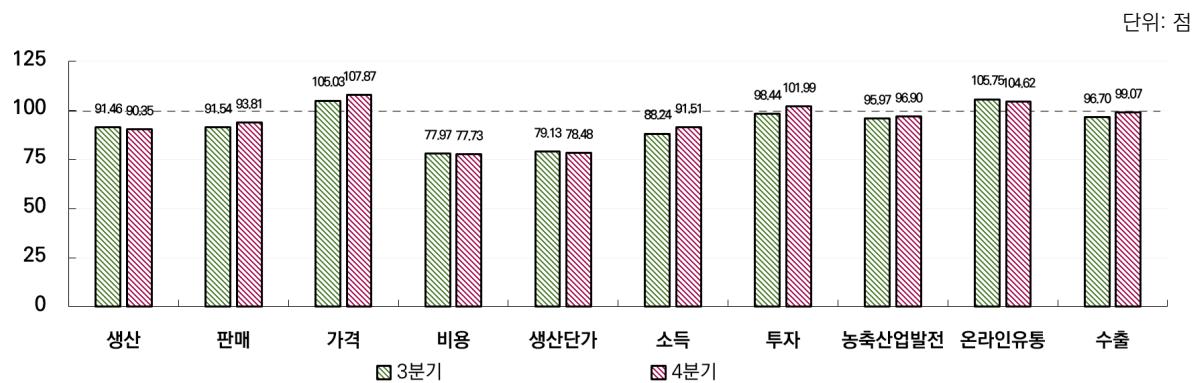
3.2. 농업경영 인식 변화

전년 대비 현재 농업경영 인식은 판매가격·온라인 유통에서는 완화 조짐이 나타난 반면, 생산 현장의 부담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

- 가격과 온라인유통 관련 지수는 두 분기 모두 기준선(100)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관련 여건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남.
- 반면 생산 과정과 직접 연결된 지수에서는 개선 흐름이 확인되지 않음.
 - 비용 및 생산단가 지수는 두 분기 모두 기준선에 크게 미치지 못해, 전년 대비 비용·생산단가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인식하는 흐름은 형성되지 않음.
 - 4분기에도 지수 수준과 변화 폭에 큰 차이가 없어, 생산 현장의 부담 인식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 확인됨.
- 소득과 투자에 대한 인식은 일부 개선되었으나, 체감상 회복 국면으로 판단하기에는 제한적임.
 - 소득에 대한 인식은 4분기에 상승했지만, 기준선에는 도달하지 못함.

- 투자는 4분기에 기준선(100)을 소폭 넘어 ‘부정보다 긍정’ 쪽으로 약간 이동했으나, 상승 폭이 크지 않아 전반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농업경영 인식 변화는 농업인이 체감하는 경영 부담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 조사의 ‘향후 농업경영의 주요 어려움’ 응답을 보면, 3분기에는 낮은 판매가격과 높은 투입비용이 유사한 수준으로 인식된 반면, 4분기에는 투입비용 부담이 더 크게 인식되며 경영 어려움의 중심이 판매가격에서 비용 요인으로 이동함.

그림 3 농업경영 항목별 지수 비교(3·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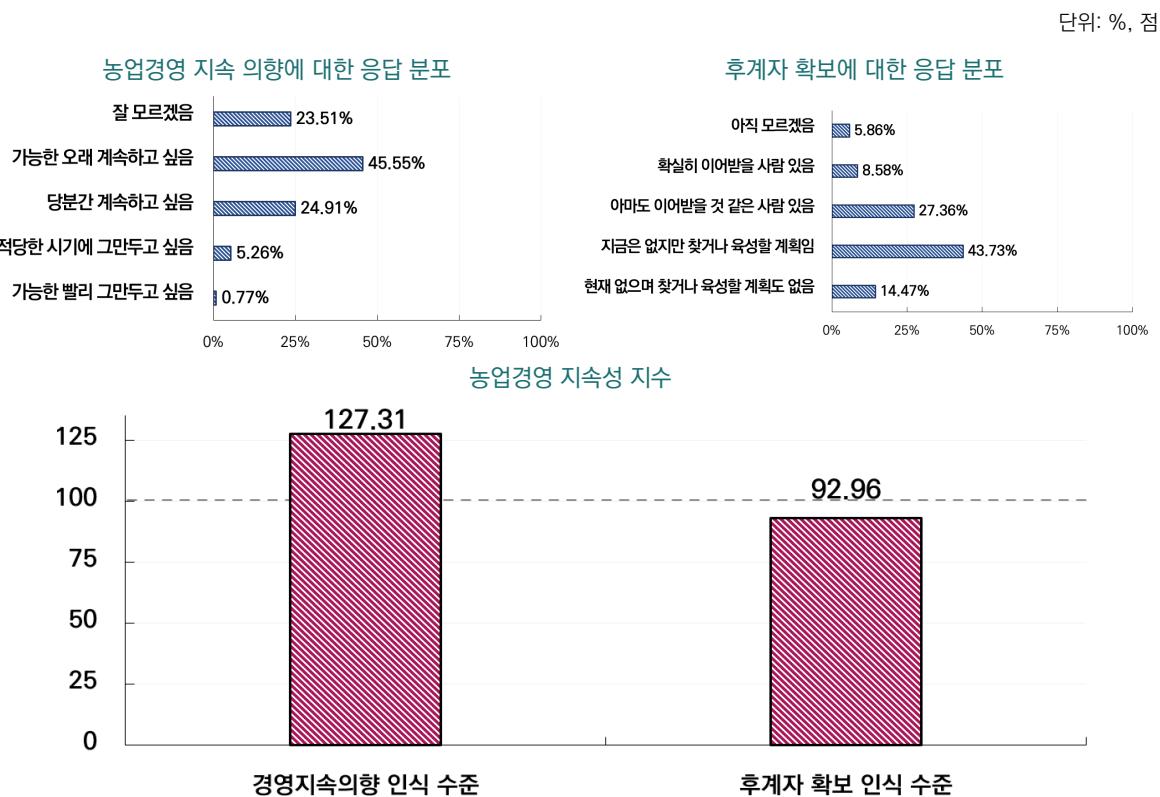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농업경영 지속 의지는 높게 유지되는 반면, 후계자 확보는 불명확

- 4분기 기준 농업인의 농업경영 지속 의향은 다소 강하게 나타남.
 - ‘가능한 오래 계속하고 싶음’(45.55%)과 ‘당분간 계속하고 싶음’(24.91%)이 합쳐져 70% 이상을 차지해, 단기적인 경영 중단보다는 현 상태 유지를 선택하는 인식이 우세함.
 - 반면, ‘가능한 빨리 그만두고 싶음’(0.77%)의 응답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
- 이에 비해 후계자 확보는 불명확해, 경영 지속 의향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임.
 - 후계자가 없으며 향후 계획도 없다는 응답(14.17%)과 현재는 없으나 향후 찾거나 육성할 계획이라는 응답(43.73%)이 다수를 차지함. 이는 농업경영을 계속하려는 의지는 강하지만, 이를 이어갈 구체적인 준비는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함.
 - 확실한 후계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약 10% 미만에 그쳐, 농업경영의 장기적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음.
 - 경영지속의향 지수는 127.31로, 후계자 확보 지수(92.96)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4 4분기 농업경영 지속 의향 및 후계자 확보에 대한 응답 분포 및 인식 비교



- 주 1) 농업경영 지속 의향 문항의 경우,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표본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함.
 2) 후계 양성 의향 문항의 경우, '아직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표본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함.
 3) 본 점수는 5점 척도 응답(①~⑤)을 50~150 범위(25점 간격)로 선형 치환한 뒤, '모르겠음' 응답을 제외하고 표본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 평균 점수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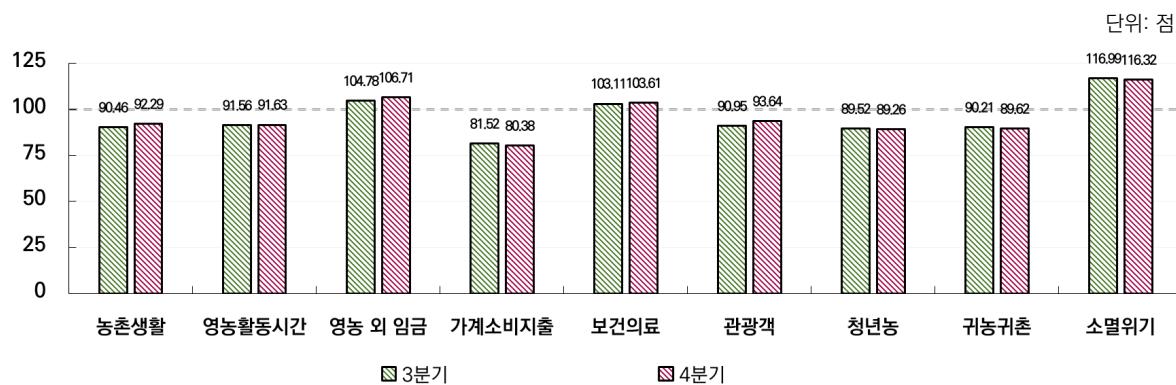
3.3. 농촌생활·활력 여건 인식 변화

현재 농촌생활·활력 여건 인식은 일부 지수에서만 제한적 개선

- 생활·활력 관련 항목 전반은 기준선(100)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남.
 - 농촌생활, 영농활동시간, 청년농, 귀농·귀촌 인식 지수는 3·4분기 모두 90 안팎으로 나타남.
 - 가계소비지출 지수는 두 분기 모두 80 수준에 머물러, 소비가 위축되었다는 인식과 함께 생활비 부담에 대한 인식이 계속되고 있음.
- 농업 외 소득과 일부 외부 여건에서는 개선 신호가 나타났으나, 생활 기반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음.
 - 영농 외 임금은 3·4분기 모두 기준선(100)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4분기에는 소폭 상승해 농업 외 소득 여건이 전년보다 나아졌다는 인식이 유지됨.
 - 관광객 지수는 4분기에 상승했으나, 기준선에 가까운 수준에 그쳐 외부 유입에 대한 체감 개선은 제한적임.

- 보건의료는 두 분기 모두 기준선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했으나, 뚜렷한 개선으로 인식되지는 않음.
- 농촌 소멸위기에 대한 인식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장기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음.
 - 소멸위기 항목은 3분기와 4분기 모두 110을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 전년보다 위험이 커졌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우세함.
 - 4분기에는 지수 변화가 크게 없어, 해당 인식이 단기간에 완화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5 농촌생활·활력 항목별 인식 비교(3·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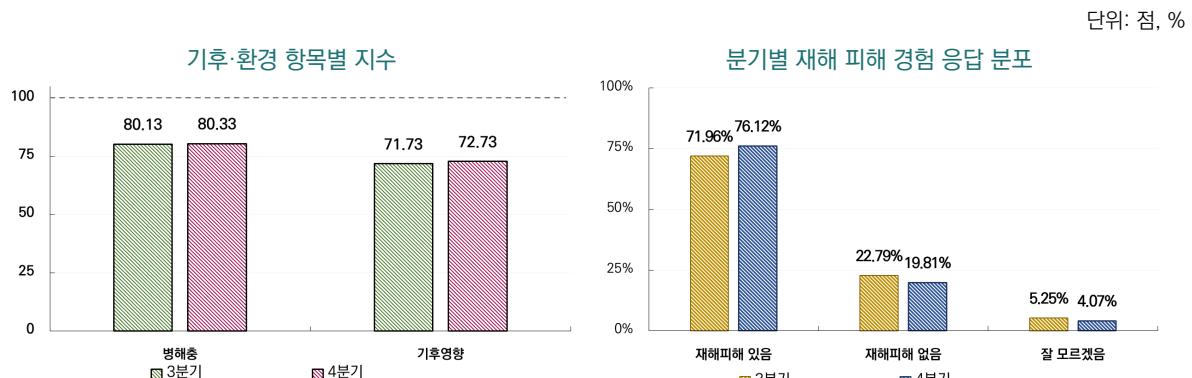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3.4. 기후·환경 여건 인식 변화

현재 기후·환경 여건 인식은 병해충·기후영향이 지속되는 상태

- 병해충과 기후영향에 대한 인식은 두 분기 모두 기준선(100)에 못 미는 수준으로 나타남.
 - 병해충 지수는 3분기 80.13, 4분기 80.33으로 기준선보다 약 20점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기후영향 지수는 3분기 71.73, 4분기 72.73으로 병해충보다 더 낮게 나타남.
- 기후 관련 재해를 경험했다는 응답 비중은 두 분기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지난 1년간 폭염·한파·홍수·기뭄·대설·태풍·황사 등 기후 관련 재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3분기 약 72%, 4분기 약 76%로 나타남.
 - 재해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분기 약 23%, 4분기 약 20%였으며, '잘 모르겠음'의 응답은 두 분기 모두 약 5% 내외로 큰 변화는 없음.

그림 6 기후·환경 항목별 인식 비교 및 재해 영향에 대한 응답 분포(3·4분기)



주: 본 조사는 기후영향이 이미 반영된 시점에 실시되어, 분기 간 기후·환경 인식이 유사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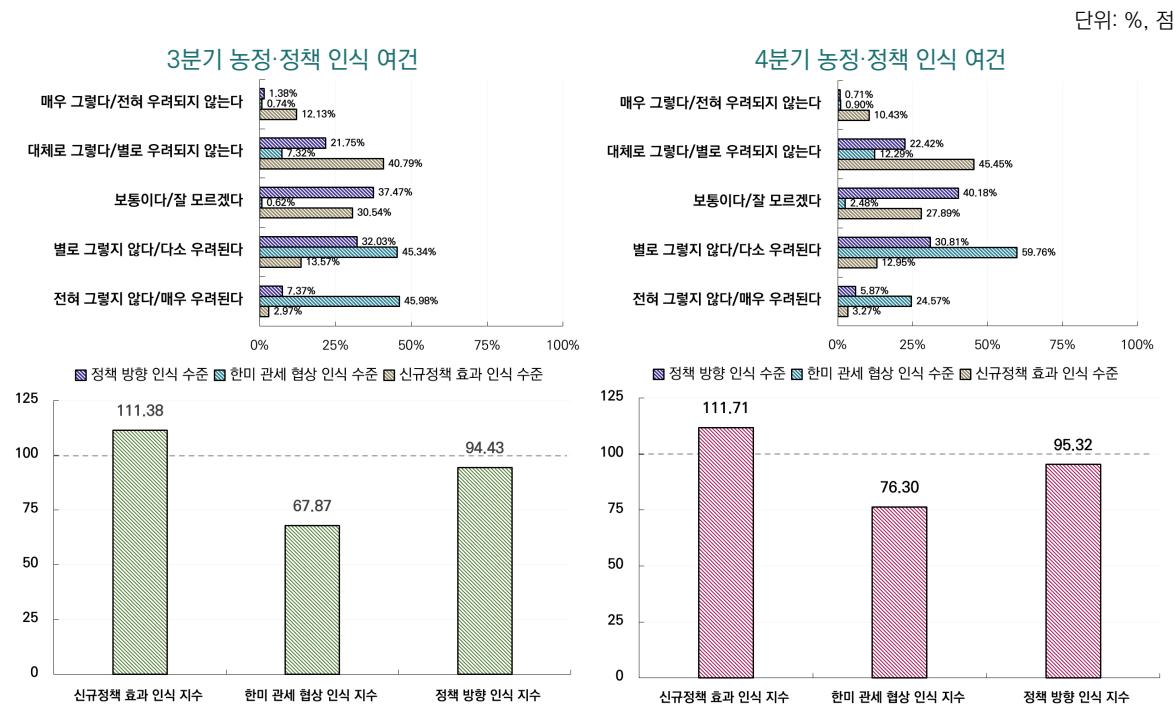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3.5. 농정·정책 여건 인식 변화

현재 농정·정책 여건 인식은 신규 정책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는 반면, 통상 환경에 대한 불안은 지속

- 농업 관련 신규 정책(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제·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정책 시행이 농업·농촌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 인식이 두 분기 모두에서 유지됨.
 - 신규정책 효과 인식은 3·4분기 분기 모두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분기 간 변화 폭은 크지 않음.
 -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함.
 - 분기 간 인식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으나, '우려된다'는 응답이 여전히 많아 불안 인식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농정·정책 여건 가운데 외부 통상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남.
- 농정 전반의 방향성에 대한 평가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 정책 방향 인식 지수는 3분기 94.43에서 4분기 95.32로 소폭 상승했으나, 농업·농촌 정책이 뚜렷하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함.

그림 7 농정·정책 항목별 응답 분포 및 인식 비교(3·4분기)



주 1) 통상 우려 문항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결측으로 처리하고, 유효 응답만을 대상으로 표본가중치를 적용함.

2) 본 점수는 5점 척도 응답(①~⑤)을 50~150 범위(25점 간격)로 선형 치환한 뒤,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표본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 평균 점수임.

자료: 저자 작성.

04

요약 및 시사점



농업인 경제심리지수는 농업 여건에 대한 농업인의 판단과 전망을 적시에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시범 개발

- 최근 농업 여건은 가격·수급·정책·기후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며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농업인의 경영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기존 통계만으로 적시에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움. 본 시범조사는 농업인이 체감하는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전망을 확인하고, 농업인이 여건을 판단할 때 작동하는 기준과 인식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시범조사로 추진됨.
- 이에 따라 농업인의 현재 체감과 향후 전망을 구분하여 파악하고, 농업경영·생활·기후·정책 영역별 인식을 종합해 농업 여건 인식의 형성과 판단 논리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둠.

농업 여건 인식은 전반적 개선 판단 없이 현 수준 유지에 대한 인식이 중심

- 2025년 3·4분기 결과를 종합하면, 농업인은 현재 여건을 여전히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는 판단은 형성되지 않음.
 - 일부 항목에서 부정 응답이 줄고 긍정 응답이 늘어났으나, 이는 여건 전반에 대한 평가 변화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인식 변화로 나타남.
 - 향후 12개월 전망 역시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형성되어, 강한 낙관이나 회복 기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됨.
- 전반적으로 농업 여건 인식은 회복에 대한 기대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임.

농업경영 지속 의향과 미래를 전제로 한 지속 판단은 서로 다른 인식으로 형성

- 농업경영을 계속하겠다는 의향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후계자 확보에 대한 인식은 낮게 나타남. 이는 농업이 당장의 생계 활동으로는 유지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이어짐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
- 농업경영은 현재 선택으로서 지속되고 있으나,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분리가 농업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에도 반영되고 있음.

수익 여건과 비용·환경 부담의 분리 인식이 농업 여건 판단을 제약

- 가격·판매·소득·투자 등 수익과 직결된 항목에서는 전년 대비 체감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생산비·생산단가·기후·병해충 등 부담 요인은 두 분기 모두 완화되지 않음. 이로 인해 농업인은 ‘벌이는 나아질 수 있으나, 벼텨야 할 부담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인식 속에서 여건을 판단하고 있음.
 - 기후·환경 부담은 농업경영에서 상시적으로 감내해야 할 조건으로 인식되며, 전반적인 여건 판단을 지속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⁶⁾

농업인 경제심리지수는 주기적으로(최소 분기당 1회 이상) 시행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자료가 축적될 때, 정책 담당자와 학계에 주는 시사점이 클 것으로 판단됨. 본 조사는 시범조사로서 두 개 시점의 조사 결과만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결과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본 자료는 두 개 분기에 걸쳐 조사 대상과 설계, 지수 산출 방식을 간략화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음. 이에 따라 결과 해석 시 단기 시범조사로서의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 조사는 조사 대상의 특성상 일반 농가 전체를 대표하는 결과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현지 통신원은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고 정책 정보 접근성이 높은 농가일 가능성이 커, 여건 변화나 정책 환경에 대해 보다 정책 민감도가 높은 인식을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본 조사 결과는 ‘농업인 전체의 평균적 인식’이라기보다,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이 비교적 빠른 집단의 인식 구조를 반영한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3분기 대비 4분기 지수 변화에는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 포함되었을 수 있음. 4분기는 수확기 도래에 따른 현금 유입이 발생하는 시기로, 일시적 유동성 확보가 심리적 부담 완화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4분기 지수의 일부 완화 양상은 수확기 효과가 반영된 단기적 심리 변화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농업인 경제심리지수는 기존 통계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농업인의 체감 기준을 보완하는 지표

- 본 조사에서 산출된 농업인 경제심리지수는 농업 여건이 좋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라기보다, 농업인이 체감하는 업황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을 살펴볼 목적으로 설계됨. 또한 어떤 부담 요인을 기준으로 여건을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 특히 여건 개선 여부보다 경영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농업 여건을 해석하는 정책적 시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이러한 시범 결과는 농업인의 체감과 전망을 정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향후에는 조사 문항 및 체계의 고도화, 표본 설계와 가중치 산정의 정교화, 대표지수 개발을 위한 각종 평균 방식 검토 등을 통해 농업인 경제심리지수를 정책 판단에 활용 가능한 기초 지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6) 엄선희(2004)는 식품 수급 및 비용 구조 분석에서 생산비·환경 요인이 단기 가격 신호와 분리되어 작동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체감 부담이 장기적으로 누적될 가능성을 제시함.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2025),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25-6-2(공개): 1-15.
- 권성훈 외(2018), “경제심리지수(ESI) 개선 방안 연구”, 국민계정리뷰, 2018-4, 한국은행.
- 엄선희(2004), 식품수급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구, KMI 기본연구, 2004-1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정건영 외(2024), “사전학습모델 기반 소비자심리보조지수(S_CCSI) 개발”,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22(6): 83-93.
-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2024), “IX. 생활환경, 기후변화와 농작물 생산 변화”, 한국의 사회동향 2024: 267-280.
- Mintert, J. & M. Langemeier(2024a), Farmer sentiment drifts lower on weaker future expectations: May 2024, Purdue University-CME Group Ag Economy Barometer, Purdue University.
- Mintert, J. & M. Langemeier(2024b), Farmer sentiment drifts lower on weaker future expectations: June 2024, Purdue University-CME Group Ag Economy Barometer, Purdue University.



한국농촌경제연구원